

운동주 탄생 100주년...문학상·생가기행 亞문학페스티벌 고은-소잉카 특별대담

2017 광주·전남 문화계 결산

㉓ 문학·문화재

이승우·고재중 등 작품집 발간
출토 100년 나주 금동관 재조명
울돌목 명랑해협 유물 다량 발굴
김치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아시아문학페스티벌에서 고은 시인(왼쪽)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월레 소잉카(가운데)가 특별 대담을 나누는 장면.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문학=올해 문학계에서는 운동주 시인(1917~2017)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올해는 운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시집이 발견된 장소는 광양 망덕포구 정병욱(1922~1982·서울대 국문과 명예 교수) 가족으로, 광양시는 지난 5월 정병욱 생가에서 유고 복사본을 전시했다.

운동주 생가를 방문하는 문학기행도 진행했다. 광주일보와 함께 지난해 '운동주 서시문학상'을 제정한 계간 '시산맥'은 40여 명의 시인들과 함께 중국 용정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운동주 생가, 묘지, 용정 중학교를 방문해 시인의 삶과 문학혼을 기렸다.

11월에는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상금 1000만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오대환 시인이 '바다, 내 언어들의 희망 또는 그 고통스러운 조건·31' 외 6편으로 선정됐다.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과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권귀순 시인, 문인귀 시인에게 돌아갔다.

'아시아의 아침'을 주제로 한 제1회 아시아문학 페스티벌이 지난 11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 등 세계 문호들과 아시아 작가들, 국내 작가 등이 참여해 문학을 매개로 우의를 다졌다. 국립5·18민주묘지 방문, 전라도 탐방에 이어 해외 초청 작가 포럼, 소잉카-고은 특별 대담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몽골의 시인 담딘 수렌 우리양카이가 선정됐다.

문학에서는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송은일(53·사진) 작가가 대하소설 '반야'를 출간했다. 송 작가는 10여 년 고투 끝에 1만5000매에 달하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

'반야'(10권·문이당)를 완결했다. 무녀 반야가 주인공인 소설은 다양한 인물들의 고뇌와 갈등, 권력을 잡기 위해 이진투구하는 군상들의 음모와 배신을 형상화했다.

올해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집 발간이 잇따랐다. 이승우 작가가 열 번째 소설집 '모르는 사람들'과 아홉 번째 장편 '사랑의 생애'를 출간했다. 고재중 시인은 13년만에 신작 시집 '꽃의 권력'을, 임동화 시인은 '매장시편' 발간 30주년을 기념해 '누군가 간절히 나를 부를 때'를 발간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1일에는 고희에 조정래 가족문학관이 들어섰다. 국내 첫 가족문학관인 이곳에는 작가 조정래와 그의 부친 시조시인 조중현(1906~1989), 조작가 부인 김초혜 시인의 육필원고, 문학 자료 등이 비치돼 있다.

◇문화재=한반도에서 처음 출토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지난 11월에는 올해 출토 100주년을 맞아 나주 신촌리 금동관 재조명 행사가 펼쳐졌다. 영산강 유역 고대 국가 지배 세력의 변화과정을 읽을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와 특별전이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랑해협에서 도자기, 토기, 돌포탄(석환·石丸), 노기(弩機·방아쇠 부분) 등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도 올해의 수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발굴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발굴 유물 수는 모두 910여 점으로 늘었으며, 특히 올해 진행된 발굴에서는 돌을 등걸에 걸아 만든 조란탄(鳥卵彈)이 최초로 나왔다.

공동체 음식문화 '김치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치 담그기'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김장문화'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근대기 체육시설의 역사를 담은 광주 관덕정(등록문화재 제694호), 가구구조와 공간 구조가 이채로운 영광 원불교 신홍교당 대각전(등록문화재 제693호), 역시 건축 구조가 독특한 목포 정광정혜원(등록문화재 제696호)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또한 일제강점기 머슴 출신 의병장인 안규홍(1879~1910)과 그가 이끄는 의병부대에 군자금과 군수품을 지원한 집주인 박제현(1871~1909)이 거주했던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족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또한 한옥의 시대적 변화 모습을 보여주는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과 대화재 생산시설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등도 등록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각가 박호영 개인전

1월 15일까지 주안미술관

대학과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한 박호영씨는 대학원 입학 후 곧바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품 활동과는 멀어졌다. 하지만 늘 마음 속에는 작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고 대인시장 맞은 편에 주안미술관을 개관, 작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며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고, 1년여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0여년만에 개인전을 가진 그는 '썩'을 주제로 주안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2018년 1월 15일까지)을 열고 있다.

전시장을 채운 건 스티플을 활용한 부조 작품들이다. 얼핏 평면화처럼 보이는 작품은 단순한 사각형의 스티플 위에 포인트를 주듯, 깊게 흡을 파고 타원형의 길쭉한 점(dot)들을 배치한 게 특징이다. 빨강, 검정 등 스티플에 화려한 색채를 입혀 입체감을 주기도 하고, 스티플 원래의 무채색을 그대로 살려 제작한 25개를 이어붙인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천정에 매달아 전시한 또 다른 작품은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등 원색을 활용한 스티플을 원형, 타원형 등 간단한 모양이나 작은 구조물처럼 만들어 배치하고 은빛 구(球)와 어우러지게 했다.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썩'

한 박씨는 홍콩 어퍼더블 아트페어, 한국·홍콩 문화교류전 등에 참여했다.

"오랫동안 꾸준히 작업해 오신 작가분들에 비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하는 박 작가는 "이번 작업이 마치 내 삶에 또 다른 새로운 한 점(dot)을 찍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2-2083. /김미은기자 mekim@

광주극장 27·28일 로맨스 영화 잇단 개봉

연말을 맞아 다양한 스토리의 로맨스 영화가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돌아온다'는 가슴 속 깊이 그리운 사람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막걸릿집 단골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서울연극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동명의 연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제41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영화 경쟁부문 최고의 상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꿈을 매개로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독특한 사랑이야기를 다룬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는 오는 27일 상영한다. 독창적인 소재와 사실적인 연출로 소품이 부채한 현대사회에 진정한 교감과 소통,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다.

28일 개봉하는 '고스트 스토리'는 유명이 되어 연인 'M'의 곁을 떠도는 'C', 사랑을 잃은 이들에게 찾아온 애듯하고 미스터리한 시간을 담은 판타지 감성 로맨스다. 연기과 배우 케이시 애플렉과 '개



'두개의 사랑'

롤'의 배우 루니 마라의 섬세한 연기가 돋보인다.

같은 날 개봉하는 프랑수아 오종의 신작 '두 개의 사랑'은 쌍둥이 형제를 오가며 사랑과 섹스를 나누는 여자 '클로에'를 통해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고스란히 풀어낸 섹슈얼 스킬러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프랑스 앙기앵레뱅 미디어아트 축제 참가 작가·단체 공모

프랑스 앙기앵 레뱅의 미디어 아트 축제에 참여할 유망한 공인 작가와 단체를 선정하는 공모가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앙기앵레뱅의 디지털 미디어아트 축제 '뱅 뉴메르크'가 추진 중인 미디어아트 융복합 공모전에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및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프랑스 앙기앵레뱅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시에 가입된 13개국 14개 도시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프랑스 앙기앵레뱅은 각 창의도시들로부터 2~3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천받은 후 최종 5개를 선정하며 2018년 6월 15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가는 프로젝트 수행비용, 숙박, 식비, 국내운송(국외제외)을 지원받게 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2018년 1월 9일까지다. 062-670-749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